



건국대 교수 김 정 주

1. 머리말

한국의 낙농 육우산업은 수입농축산물과 국내 타 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재의 생산구조하에서는 생산력 향상이나 비용절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농업 선진국에서는 생산과 유통을 통

합한 계열화 체계를 통하여 농가는 생산에만 주력하고 생산자재의 조달이나 생산물의 판매는 협동조합 등 계열주체가 맡아 처리해줌으로서 농가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소득도 보장해주는 계열화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낙농 육우 산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이 주도한 계열화체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 해보도록 하겠다.

배축 한포기씩 사가듯이
전국민이 우유 한병씩만 더
마신다면 -- 히힛



하여튼 새해에는
낙농육우산업이 더욱 포근하고
따뜻해 질것을
기대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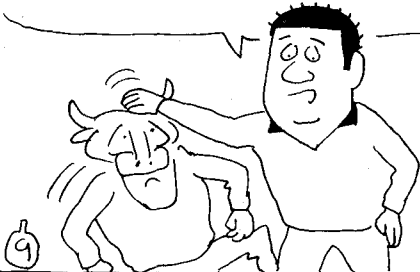
생각만 해도
좋아 죽겠다!!
낄낄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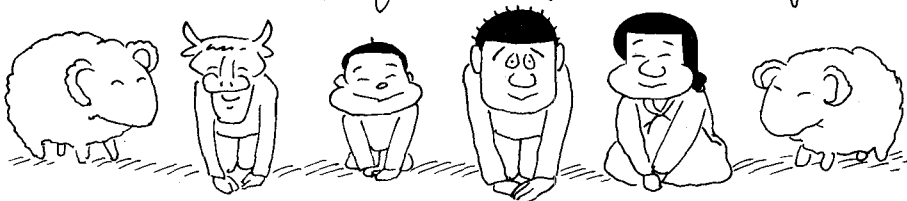
쫓쫓 너무 도움만
바라면 곤란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거야



봐라! 포근한 양들이
우릴 감싸고
있잖아



낙농육우인 여러분 신미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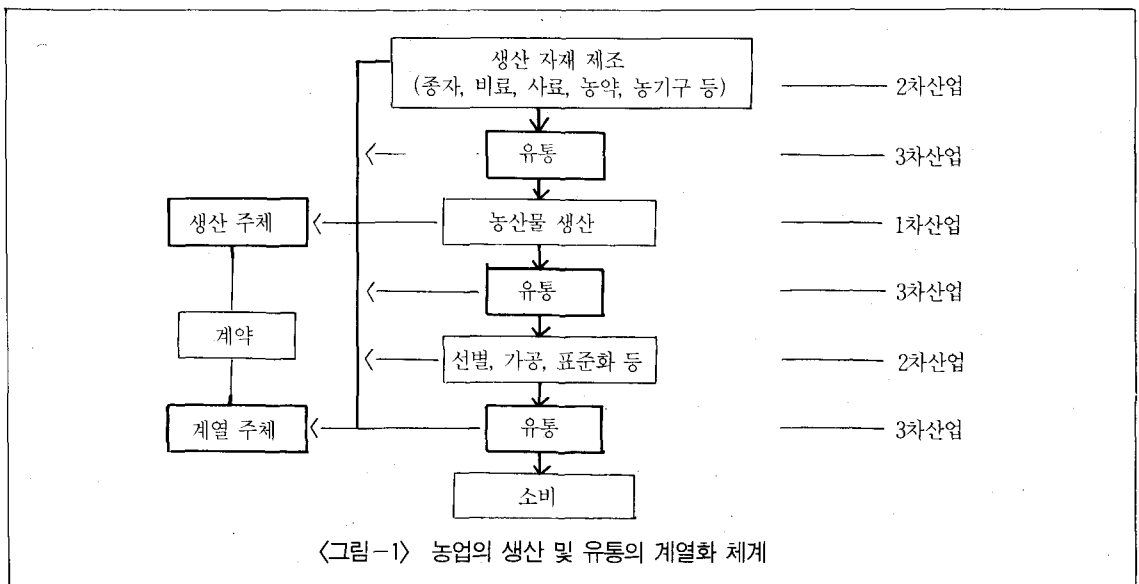
2. 계열화 체계의 개념

현재의 일반적인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각 부문은 개별 경영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독립된 경영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마다에서 참여자 이윤이 충족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종소비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농업이라는 산업을 다른 산업과 관련지어 볼 때 산업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종래와는 달리 농업도 다른 산업과 연관을 맺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농업경영활동을 이해함에 있어 생산활동 그 자체는 물론 생산자재의 구입, 생산물의 저장, 가공, 수송, 판매 등 유통 단계까지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묶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요구와 함께 농업문제가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종래의 증산위주의 농업정책만으로는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농업생산자 유통을 하나로 묶어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농업생산 및 유통의 계열화 체계

이다. 요컨대 농축산물의 계열화 체계란 흔히 대기업이 수많은 계열회사를 거느리면서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농업부문에도 농용자재의 생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농산물 생육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재를 위한 농축산물의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경영체(계열주체)가 일괄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결국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계열화 체계는 경제통합의 일환이며 이 경제통합은 다시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으로 구분한다. 수평적 통합은 같은 종류의 산업이 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화를 목표로 경영을 통합하는 형태이고 수직적통합은 한 산업의 각 부문간 경영을 통합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통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상의 계열화 체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1>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열화 체계, 특히 수직적 통합 형태의 계열화 체계는 농업으로 대표되는 1차산업과 공업으로 대표되는 2차산업 그리고 상업으로 대표되는 3차산업이 하나의 경영체 관리하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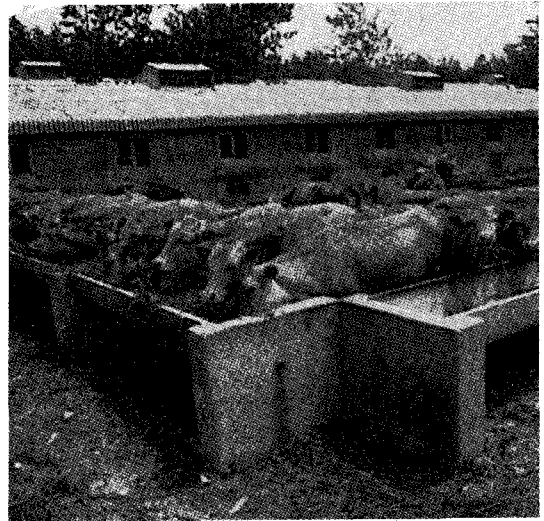
이때 농업에 있어서의 생산이야말로 본격적 의미의 생산을 대표할만큼 중요하므로 농업생산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농업생산자를 생산주체라 명명하고 있다.

농축산업의 생산및 유통의 계열화 체계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한다. 첫째, 개별계산형으로서 계열주체가 주요 생산자재만 공급해주면 생산과 판매는 생산주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가 있다.

이는 생산단계를 중심한 전반 통합으로서 완전통합을 향한 하나의 부분통합이다. 이러한 형태의 통합 형태는 생산자재의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안정적인 장점이 있으나 경영에 따른 위험이 모두 생산주체에 귀속되므로 생산주체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미흡한 방법이다.

둘째, 이윤배분형으로서 계열주체가 생산요소를 약정된 가격으로 생산주체에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재의 안정적 공급측면에서는 앞서 말한 개별계산형과 동일하나, 생산된 생산물도 약정된 가격으로 계열주체가 구매해 줌으로서 생산주체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형태는 생산주체가 경영을 주도하면서도 경영에 수반된 위험부담을 계열주체와 분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생산요소 및 생산물의 판매, 구매가격을 정하는 과정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가격 진폭이 심한 생산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셋째, 사료효율성으로서 계열주체가 일체의 생산자재를 생산 주체에게 공급하고 생산기술에 따른 기술지도 뿐 아니라 유통 판매까지를 계열주체가 맡아서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모든 경영에 따른 위험을 계열주체가 부담하므로써 생산 주체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생산능력에 따라 생산보수를 차등지급하는 능률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력의 대가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어서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형태는 경영의 주도권을 계열주체가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생산 주체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왜소해져 농업의 경우 마치 농민이



농업노동자로 전락한 것 같은 인상을 줄뿐 아니라 생산 보수의 지급기준이 되는 각종 지표를 정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밖에도 정액보장형, 능률 비례형, 고정 보수형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열화 체계 형태로 사료효율형이다.

한국에서 계열화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초 부터이나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농축산업이 국내외적으로부터 수입개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접하게 되자 농축산물 유통근대화 와 경영합리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업문제를 애그리 비즈니스(Agribusiness)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면서 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하여 1990년 12월 현재 양계의 경우 전국에 10개의 계열주체(회사)와 400여개의 생산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양돈의 경우도 10여개의 계열주체가 비육돈을 중심으로 부분적이나마 계열화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계열화체계의 일반적 기대효과

계열화체계에서는 경영전체를 하나의 경영주체가 종합적으로 주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경영규모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간재에 대해서는 과세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영체의 입장에서는 절세가 가능하며 최종산물 처분단계에서만 이윤을 부과함으로써 이윤의 중심점을 단일화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계열체계에 비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자재의 조달, 생산관리, 가공처리등의 상품화 과정이 하나의 경영체에 의하여 주도됨으로서 제품의 규격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질병관리면에서 있어서도 효율적일 수 있고 제품의 위생적 처리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경영주체는 자기상표에 대한 광고, 선전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계열주체와 수평적으로 통합할 경우 공동광고 활동이 가능하여 제품의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계열화체계에서 전체의 생산을 소수의 경영체가 관장할 수 있으므로 생산조절을 위한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수급조절이 용이할 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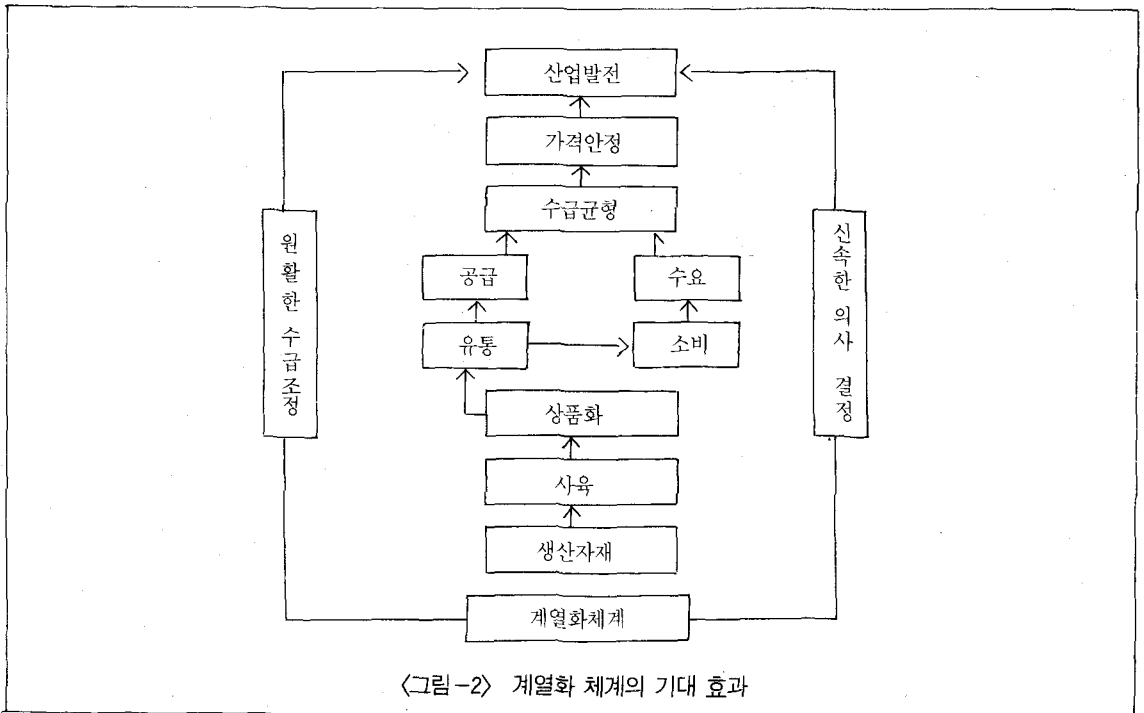
니라 제품의 수출입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과잉 또는 과소 생산의 진폭을 완화 시킬 수 있다.

다섯째, 자재의 공급업체와 같은 연관산업과의 거래교섭력을 높여 산업간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산업간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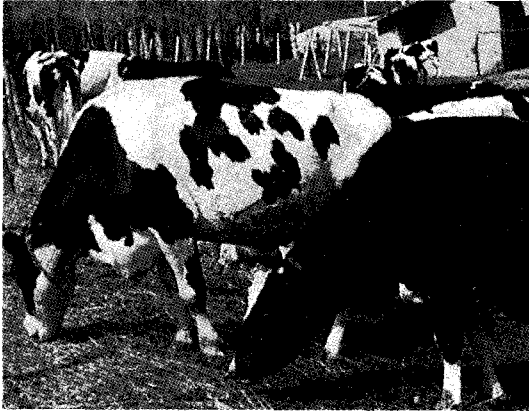
여섯째, 이상의 효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며 종국적으로 전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그림-2>와 같다.

참고로 필자가 육계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계육을 최종소비재로 할 경우 비계열화 체계에 비하여 21.1%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고 닭고기 요리를 최종 소비재로하여 소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45%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로서 앞으로 육계의 계열화 체계가 정착될 경우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2> 계열화 체계의 기대 효과



4. 협동조합을 통한 낙농 육우산업의 계열화 체계

낙농이나 육우산업은 브로일러나 비육돈에 비하여 자본의 회임기간 길 뿐 아니라 생산성이 사양관리 기술 수준에 의하여 좌우 된바가 크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산업에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사료 조달을 위한 초지나 채초지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자본의 투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브로일러나 비육돈 생산에서 처럼 정형화된 계열화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낙농 육우생산에 있어서 계열화체계는 생산자재의 조달이나 생산물의 판매에 치중하되 경영의 주도권을 계열주체가 완전히 장악하는 사료효율성 보다는 생산주체가 경영을 주도하는 이윤분배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윤분배형 계열화 체계라는 것이 사실 현재 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구매 및 판매사업임을 알아야 한다. 즉, 오래 전부터 농협이나 축협이 농산물 가공산업이나 유통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완전 계열화 체계를 향한 부분적 계열화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용자재의 구입 생산물의 수송, 저장, 가공, 판매는 협동조합이 맡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협동조합의 이상이요 이것이 바로 계열화 체계의 골격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협동조합의 지도, 구분, 판매, 운송, 가공사업이 이상적으로 이루어 질때 협동조합을 통한 계열화 체계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협동조합이 과연 기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협동조합의 경영체로서의 기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협동조합을 고도의 경쟁속에서 전문화된 경영기술로 무장한 경영체이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정부의 보호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 합리화에 매진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한다면 계열화 체계가 불가능 한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일본이 협동조합을 통한 농축산물 계열화 체계로 농축산물 수급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5. 맺음말

우리나라의 낙농 육우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불안을 느끼지 않고 타산업과 상응하는 보수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다른 경영은 경영전문가에게 맡기는 체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 그 경영 전문가가 바로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협동조합의 혁신적인 변신이 절실히 요구 된다. 만일 기존의 협동조합이 이와 같은 일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내부사정으로 변신이 불가능 한다면 이에 상응한 생산자 단체가 하루속히 조직 되어야 할 것이다.